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니화는 밭서 디고 **접동새** 슬피 울 제
 낙산(落山) 동반(東畔)으로 의상대(義相臺)에 올라 안자
 일출(日出)을 보리라 밤등만 니러하니
 상운(祥雲)이 집피는 동 육룡(六龍)이 바되는 동
 바다해 떠날 제는 만국(萬國)이 일위더니
 텃둥(天中)의 티뜨니 호발(毫髮)을 헤리로다
 아마도 널구름 근처의 머플세라
 시선(詩仙)은 어대 가고 해타(咳唾)만 나맛느니
 텃디간(天地間) 장한 기별 자셔히도 할셔이고
 사양(斜陽) 현산(峴山)의 툃툃(躑躅)을 으니말와
 우개지륜(羽蓋芝輪)이 경포(鏡浦)로 내려가니
 십리 빙환(氷紈)을 다리고 고터 다려
 당송(長松) 울흔 소개 슬카장 퍼더시니
 물결도 자도 잘샤 모래를 헤리로다
 고쥬(孤舟) 해람하야 덩자(亭子) 우해 올라가니
 강문교(江門橋) 너른 겨태 대양(大洋)이 거기로다
 동용(從容)하다 이 기상(氣像) 활원(闊遠)하다 더 경계
 이도곤 가진대 어디 잇닷 말고
 홍장고사(紅粧古事)를 헌사타 하리로다
 강능(江陵) 대도호(大都護) 풍속이 도흘시고
 절효정문(節孝旌門)이 골골이 버러시니
비옥가봉(比屋可封) 이제도 잇다 할다

(중략)

저근덧 밤이 드러 풍낭이 덩(定)하거늘
 부상(扶桑) 지척(咫尺)의 명월을 기다리니
서광 천당이 비는 듯 숨는고야
 쥬렴을 고터 것고 옥계를 다시 쓸며
계명성 돛도록 곳초 안자 바라보니
백년화(白蓮花) 한 가지를 뉘라셔 보내신고
일이 도흔 세계 남대되 다 비고져
 뉴하쥬(流霞酒) 가득 부어 달라려 무론 말이
 영웅은 어디 가며 사선(四仙)은 귀 뉘러니
 아매나 맛나 보아 넷 기별 못자 하니
 선산(仙山) 동해(東海)에 갈 길히 머도 멀샤
송근(松根)을 베여 누어 풋잠을 얼똥 드니
 꿈에 한 사람이 날다려 닐온 말이
 그대를 내 모르라 상계(上界)에 진선(眞仙)이라
 황딩경(黃庭經) 일자(一字)를 엇디 그릇 널거 두고
 인간의 내려와서 우리를 딸오는다
 저근덧 가디 마오 이 술 한 잔 머저 보오
 북두성(北斗星) 기우려 창해슈(滄海水) 부어 내여
 저 먹고 날 머저늘 서너 잔 거후로니
 화풍(和風)이 습습(習習)하야 낭액(兩腋)을 추혀 드니
 구만리 당공(長空)에 저기면 날리로다
 이 술 가져다가 사해(四海)에 고로 난화
 억만 창생을 다 취케 맹근 후의
 그제야 고터 맛나 또 한 잔 하갓고야

말 디자 학을 타고 구공(九空)의 올라가니
 공동 옥소(玉簫) 소래 어제런가 그제런가
 나도 잠을 깨여 바다할 구버보니
 기피를 모르거니 가인들 엇디 알리
 명월이 천산 만낙(千山萬落)의 아니 비췌 대 없다
 -정철, 「관동별곡」-

32. 윗글의 시어의 기능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백년화'와 '명월'은 모두 관념적 의미를 지니는 자연물이지만, '백년화'는 '명월'과 달리 임금이 화자에게 베푼 은혜를 나타내지 않는다.
- ② '니화'와 '접동새'는 모두 화자의 여정이 시작되는 시간의 공간적 배경을 나타내지만, '접동새'는 '니화'와 달리 계절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 ③ '비옥가봉'과 '일이 도흔 세계'는 모두 세태를 묘사하지만, '일이 도흔 세계'는 '비옥가봉'과 달리 화자가 자랑스러움을 갖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 ④ '서광 천당'과 '계명성'은 모두 시각적 심상을 통해 주변 풍경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서광 천당'은 '계명성'과 달리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지 않는다.
- ⑤ '송근'과 '공동 옥소 소래'는 모두 꿈과 현실을 매개하며, '송근'을 통해 화자는 현실에서 꿈속으로, '공동 옥소 소래'을 통해 화자는 꿈속에서 현실로 향하게 된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고전 시가에서는 자연 친화적 정서가 드러나거나 화자의 임금이 대한 충정이 드러난다. 이때, 자연 친화적 정서의 경우 화자가 자연을 완상하면서 느낀 감상을 통해, 화자의 임금이 대한 충정의 경우 화자가 임금의 은총에 감사해하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연군지정 또는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지정을 통해 드러난다.

- ① 고전 시가에서 화자의 임금이 대한 충정이 드러난다고 한 것을 고려한다면, '상운'과 '널구름'이 임금의 '근처의 머물세라'는 임금이 간신들에게 방해받는 상황을 염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화자의 우국지정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고전 시가에서 자연 친화적 정서가 드러난다고 한 것을 고려한다면, '십리 빙환을 다리고 고터 다려'는 화자가 바라본 경포호의 풍경을 얼음과 비단에 비유하여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화자가 느낀 감상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고전 시가에서 화자의 임금이 대한 충정이 드러난다고 한 것을 고려한다면, '명월이 천산만낙의 아니 비췌 대 없다'는 임금의 은총에 대하여 화자가 예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화자의 연군지정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고전 시가에서 자연 친화적 정서가 드러난다고 한 것을 고려한다면, '당송 울흔 소개 슬카장 퍼더시니'는 화자가 바라본 풍경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화자가 느낀 감상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고전 시가에서 자연 친화적 정서가 드러난다고 한 것을 고려한다면, '동용하다 이 괴상 활원하다 더 경계'는 화자가 바라본 풍경의 예찬하여 자연의 광활함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화자가 느낀 감상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군.

34.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윗글을 감상한 내용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정철의 「관동별곡」은 강원도의 관찰사로 부임하게 된 정철의 여정을 담은 기행 가사로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정철이 느낀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철이 관찰사로서 가진 포부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철의 「관동별곡」에서는 유교에 기반한 충(忠)뿐만 아니라 도교적 신선 사상도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정철이 꿈을 꾸는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철의 「관동별곡」에 드러난 특징을 확인해봅시다.

학생 1: '우개지륜', '뉴하췌', '진신' 등의 표현을 통해 「관동별곡」에서는 도교적 신선 사상의 소재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학생 2: '꿈'에서 '술'을 통해 '억만 창생을 다 취케' 만든 다음에 '그제야 고터 맛나 또 한 잔 하'겠다는 데에서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그후에 즐기겠다는 정철의 관찰사로서의 포부를 엿볼 수 있습니다. ㉡

학생 3: '경포'호에서는 풍경에 대한 감상이, '강릉'에서는 강릉 사람들의 풍속을 감탄하는 데서 기행 가사의 성격이 드러나고, 정철이 그곳 사람들의 풍속을 모방하고 싶은 데서 정철의 관찰사로서의 포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

학생 4: '꿈'에서 '복두성'을 기울여 '창해슈'를 붓고, 이 술을 정철이 신선과 함께 즐기는 데서 도교적 신선 사상의 소재의 사용이 드러나고, 정철이 가진 호탕한 기상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학생 5: '꿈'에서 '황당경 일자'를 옥황상제 앞에서 잘못 읽어 인간계로 적강(謫降)한 모습과 이후 정철의 관찰사로서의 포부가 모두 드러나는 데서, 유교적 충의 사상과 도교적 신선 사상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